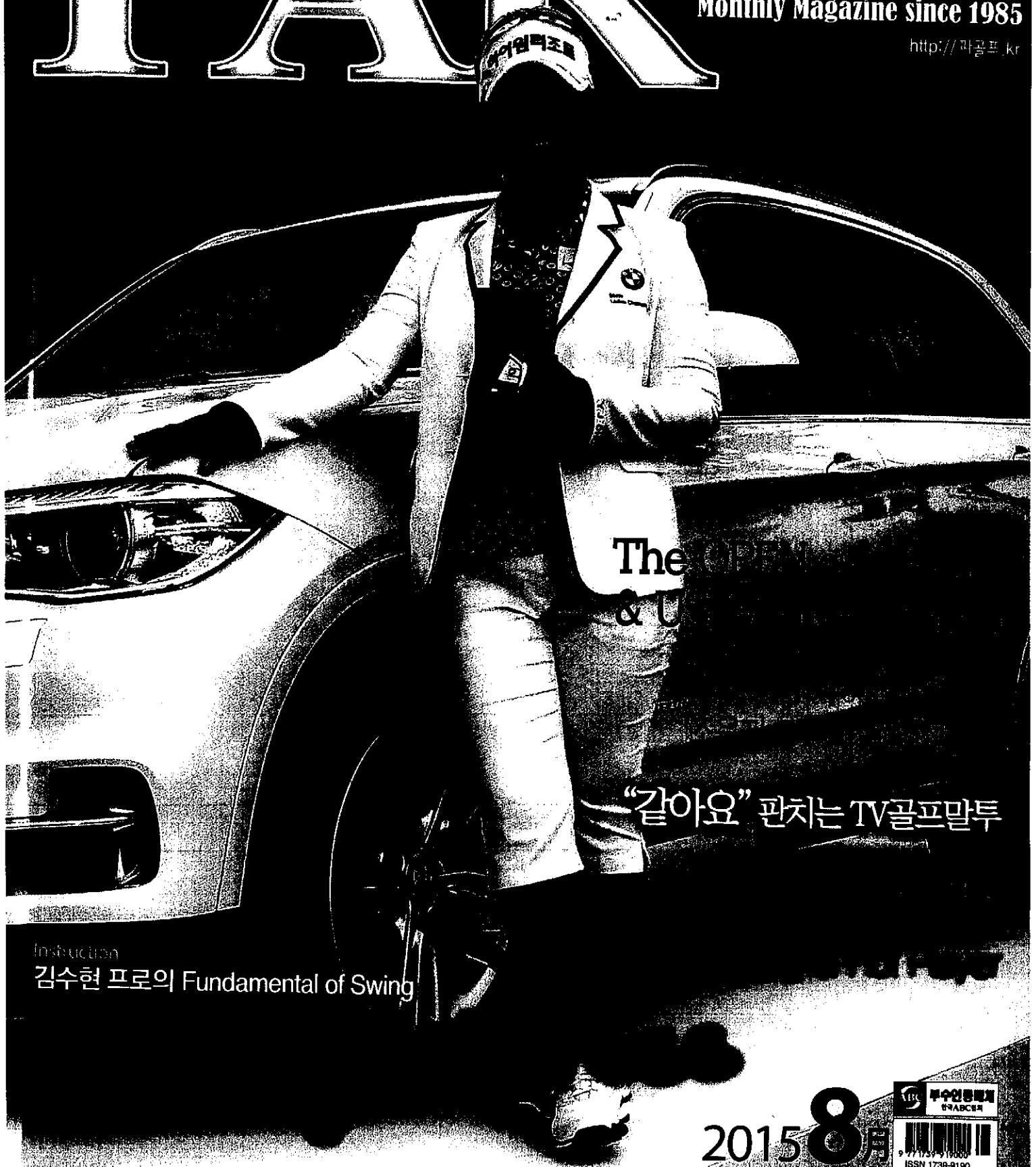


PAR GOLF

Monthly Magazine since 1985

<http://pargolf.kr>



The
& U

“같이요” 판치는 TV골프말투

Instruction
김수현 프로의 Fundamental of Swing

2015 8월

우수인용매체
한국ADCC



9 771739 919000
ISSN 1738-9190

KAGA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



배우 김정균, 홍보위원 위촉

배우 김정균이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KAGA)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정균은 1991년 KBS 14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입문해 드라마, 영화, 연극 무대 등을 오가며 다양한 선거운을 연기를 선보였다. 특히 90년대 청춘 드라마 '내일은 사랑'을 통해 이병헌과 함께 여성 팬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청춘스타에 등극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예술대학 외래교수를 맡아 후배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균은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골프를 사랑하고 즐기는 한 사람으로 KAGA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KAGA 홍보위원인 만큼 골프를 알리고 골프가 더욱 활성화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는 '골프를 스포츠로, 골프를 통한 건전한 사교와 사회봉사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순수 아마추어 골퍼들의 단체로, 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친목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됐다.

사회, 홍보위원 위촉

배우 사회가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제이와이드컴퍼니에 따르면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KAGA/kag.or.kr)는 골프

지변 확대를 위해 배우 김정균 유태웅 김혜진, 개그맨 심현섭이 이어 배우 사회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사회는 2003년 제13회 미스 춘향 선발대회에서 미로 선발되며 연예계에 발을 들여 놓은 이후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화 '한 번도 안 해본 여자'에서 주연으로 발탁됐고, 올 초 신하균, 장혁 주연의 영화 '순수의 시대'를 통해 사극에 도전하기도 했다. 사회는 "평소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을 잊지 않고 있다.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 홍보위원으로 발탁된 만큼 골프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가 아직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대중적인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골프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골퍼 김재은 경기위원으로 위촉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는 프로골퍼 김재은을 경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재은은 2003년 프로골퍼선수 자격을 획득하고 현재 KLPGA 선수로 활동 중이다. 혼마골프, 닥스골프 소속이며, 기업의 VIP 초청 동반 골프라운드나 초청 강의 등 미디어와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아주대학교 평생대학원 골프최고위과정 교수직을 맡았으며, SBSGOLF 필드아카데미 레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프로골퍼인 김재은은 배우 최재원과 지난 2004년 결혼에 골인해 대표 연예인-스포츠스타 커플로 유명하며, 슬하에 두 딸이 있다.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재은 프로골퍼를 협회 경기위원으로 위촉해 회원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협회의 발전과 골프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재활 한경닷컴 대표 공보이사로 위촉

황재활 한경닷컴 대표이사가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 공보이사로 위촉됐다.

(KAGA는 골프 저변 확대와 협회 발전을 위해 황재활 한경닷컴 대표이사를 공보이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황재활 대표는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기자로 입사해 한경닷컴 뉴스팀장, 경제팀장, 뉴스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 3월부터 한경닷컴 대표직을 맡았다.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인 경제 전문 인터넷 미디어 한경닷컴 황재활 대표를 공보이사로 위촉해 협회 차원에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랜 시간 언론사에 몸담고 계신 만큼 협회 발전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